"여수 골목상권 무차별 잠식 SSM 막아라"

〈기업형 슈퍼〉

롯데쇼핑, 동네슈퍼 인수 편의점 형태 가맹점 늘려

지역경제 붕괴 우려… 소상공인·시민단체 거센 저항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장악이 극에 달해 여수지역 중소상인과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여수시에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모두 3곳. 여수인구를 감안하면 9만 8000명당 1개꼴로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적정인구 15만~20만명에 비해 대형유통업체 밀집도가 적정선을 넘어 매우 높은 실정이다.

9일 여수시의회 전창곤(국민참여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 SSM이 들어선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소규모 상인들은 매출액이 평균 40% 이상 떨어지고, 5곳중 2곳 이상이 6개월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생계를 잇기가 힘들다.

상황이 이런데도 롯데쇼핑(주) 측은 여수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롯데슈퍼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롯데는 편의점 형태의 가맹점을 늘리는 교묘한 수법으로 기존 동네 슈퍼를 인수해 골목상권을 공략하고 있다.

직영점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돼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영세수퍼들을 가맹점으로 흡수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기업형 슈퍼 (SSM)입점 철회 여수시 비상대책위원회와·시민단체·시의원들은 지난 6일 여수시 1청사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쇼핑이 롯데슈퍼를 가맹점 형태의 편법으로 여수시 신기동 부영3차 아파트내에 SSM 개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입점철회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와 가맹사업인 롯데슈퍼의 진출이 잇따르자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포를 늘리기 위해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내걸었던 대기업들이 가맹점 사업과 도매업이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 가격과 공급 등을 맘대로 조정하면서 지역상권을 장악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대기업들이 지역 물류를 장악하는 순간 가맹점주들은 대기업의 종업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지역 상권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유통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여수 상권의 현주소는 지역경제 몰락을 부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여수 대형마트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기는 커녕 생계형 골목상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다"며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정국 SSM 입점철회 여수시 준비위원장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을 일삼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게 지금 바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라며 "롯데가 자진 입점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롯데 독과점 반대 범시민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SSM 입점을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초록 세상'에 47만 관광객 몰렸다

햇차 만들고 차예절 배우고 '대성황'

지역경제 활기속 보성 다향제 폐막

지난 8일 폐막한 '제37회 보성다향제'에 47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축제주관 기관인 보성차생산자조합(회장 서상균)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간 열린 축제기간 동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축제 행사장이 연일 관람객들로 크게 붐볐다.

이번 축제에는 4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45만여명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일원에 차만들기 체험장과 찻잎따기 체험장을 확대 운영해 자신이 딴 녹차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 마셔보려는 이곳은 관광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또한 차의 풍년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신제, 한국 명차 선정대회, 전국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전국차인 만남의장, 보성녹차 및 관광산업발전 심포지엄, 다례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선보였으며 한국차박물관도 무료 개방돼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햇차 만들기 체험장에 제공된 찻잎은 이상저온에 의한 냉해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의 찻잎이 나와 체험객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성소리 한 대목 배우기, 다례예절체험. 아름다운 차밭을 시와 그림, 문학에 담는 다향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관내 다문화가정 6쌍이 축제행사장에서 올린 합동전통혼례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출향향우 750여명이 열차를 이용해 축제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재경 보성군향우회(회장 김용수)는 열차 8량을 직접 임대해 고향을 방문, 축제장을 방문하고 제암산 일대에서 '제2회 향우회장배 등반대회' 등을 가졌다.

김용수 재경 향우회장은 "고향에 올 때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좋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재경 향우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제 관계자는 "보성 녹차축제는 한국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내 녹차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년 녹차농가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양 서천변에 '춤추는 분수'

30억 투입 영상 음악분수대

지역 새 명소로 자리매김

광양읍 서천변에 영상 음악분수대가 설치돼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5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영상음악 분수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시립합창단 공연과 음악분수 시연, 불꽃쇼, 모듬북 공연 등 각종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볼거리 제공과 효율적인 여가활용을 위해 국비와 시비 30여억원을 투입해 영상음악 분수대를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영상음악 분수시설은 각종 모양의 분수와 컬러 레이저 등 영상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조명과 영상 레이저쇼, 춤추는 분수가 조화를 이룬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분수대 설치는 관광자원, 주변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과 결연

광양 역사 관광 문화 전파

홈피통해 '시민 헬퍼' 선발

광양시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STC-Korea)은 지난 4일 월드마린센터 5층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시민을 이어주는 헬퍼(Helper) 결연을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광양시가 STC-Korea 외국인 학생들이 1년간의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외국(광양)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학생들이 목표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해줄 '친구'를 맺어주는 자리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 구사능력이 있는 시민을 '헬퍼'로 선발한다.

헬퍼들은 자율적으로 외국인 학생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광양항뿐만 아니라 광양의 역사와 관광, 문화를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시작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제4기 석사과정에는 그리스,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에서 각국 정부와 소속 해운물류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7명의 외국인 학생과 해운물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4명의 내국인이 수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 북

군산대서 내일 새만금 발전전략 세미나

새만금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1일 오후 5시 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열린다.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고 최근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열려 관심을 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새만금 발전과 전라북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북도가 우선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주요 현안의 진행과정과 지역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만금 전략산업과 지역산업발전에 관련된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의 20여개 연구회 회장단을 비롯해 군산대 주요 보직자와 유관기관 관련자들도 참석, 향후 관학 연계방안 등도 토의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비전 '숨쉬는 친환경 창조도시'

정읍시가 첨단과학과 농업농촌을 중심으로 전북 서남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을 대비한 발전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비전 2020'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읍비전 2020'은 국가균형 발전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등을 검토, 연계해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관광, 농업, 농촌, 교육, 환경, 도시개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읍시의 기회와 위기, 장점과 약점(SWOT)을 분석하고 관내외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발전비전과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비전을 (가칭)'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창조도시'로 설정하고,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첨단과학산업 신거점 육성 ▲사계절 역동하는 체험관광도시 육성 등 8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시는 '정읍비전 2020' 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해 오는 7월 말까지 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노인복지관 어버이날 孝 사랑 실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 스님)은 지난 4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강수 군수, 임동규 도의원, 어르신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복지관 직원들은 방문한 모든 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강호항공고의 관악공연과 배영애 통울림 회장의 한량무 공연이 펼쳐졌다.

도완 스님은 "복지관과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노년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엄마·아빠와 함께하면 '기쁨 두배' '가정의 달'을 맞아 순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년별 경기와 함께 다양한 학부모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순창군 제공〉

전북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44점'

실천의지 미약… 임실·부안은 주민과의 소통 불통지대

도내 14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44.31을 기록,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분야별 최상위 총점 평균 75점이상인 'SA 등급'을 맞은 경우는 '종합구성'에서는 한군데도 없었다.

'개별구성'에서는 완주군,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전주시가 차지했으며, '웹(web) 소통' 분야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순창군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임실군과 부안군 2곳이 공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불통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소통불통'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모두 16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선거 이후에 약속한 선거공약을 지방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약실천 계획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실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민 신모(58)씨는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여·48)씨는 "지자체장들이 투명한 행정을 편다고 내세우면서 정착 자신이 내건 공약의 실천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평가를 거울삼아 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열린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 감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민예·공예품 등 전북대표 관광 기념품 공모전

전북도 공예협동조합은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지역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민예품·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상품, 하이브리드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해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관광과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 공모전은 태권도 관광기념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세계 7000만명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전북도의 대표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세계 철새의 날' 듣는 새와 보리의 소리

군산시는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오는 14~15일 금강 철새조망대에서 기념 음악회 '새와 보리들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는 군산 시립교향악단과 등대예술문화회관의 공연을 비롯하여 국립국악원 지도위원인 원장현씨의 대금연주, 금현국악원 원장 조경주씨의 한국무용 등이 펼쳐진다.

'세계 철새의 날'은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새의 눈으로 바라본 토지이용의 변화라는 주제로 철새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춘향골 농특산물 세계시장 개척 나서

남원시는 오는 11~14일 홍콩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홍보전시관을 운영,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식품박람회에 관내 4개 업체에서 생산한 음료, 만두, 홍삼제품, 전통주, 멜론차, 대추차, 멜론 등 10여개 농특산물을 출품,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특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식품박람회 참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등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 온천수, 한국의 좋은 물에 선정

순창 온천수가 최근 한국물학회(회장 이규재)에서 주관한 '2011년 한국의 좋은 물'에 선정됐다. 한국물학회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물과 물 관련 기기에 대한 평가에서 '순창 온천수' 등 5개를 선정했다.

'순창 강천수 온천수'는 수질분석 결과 분석한 결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 '물 기능성'(K-index 8.21)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